

“남자 연기 꿀잼...다음 생은 남자로?”

드라마 '흑기사'서 불멸의 샤론 연기한 서지혜

사극·액션·노인 분장 등 4편은 찍은 듯 다양한 연기 욕심...내 나이가 멈췄으면 그래도 짝사랑 연기만큼은 안하고 싶어

연기자 서지혜(34)는 서른 중반이 되면서 욕심이 커졌다. 연기는 더욱 잘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 사랑도 받고 싶다. 하지만 초조해하거나 안달하지 않는다. 이전 보다 “인생을 들여다보고 즐길 수 있는” 마음가짐이 생기면서 편히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조금 더 욕심을 내 “여성미가 가장 돋보이는 지금의 나이에 멈춰있길 바란다”며 웃는다.

서지혜는 ‘지금의 서지혜’로 변한 시점을 2014년으로 기억한다. 그동안 밝고 귀여운 캐릭터를 주로 맡았던 그는 SBS ‘펀치’를 통해 데뷔작 ‘울인’ 이후 11년 만에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이후 SBS ‘그때, 그런 거야’와 ‘질투의 화신’(2016), 최근 종영한 KBS 2TV ‘흑기사’까지 그는 도시적이고 지적인 분위기를 잘 소화해 매력을 높였다.

“20대 때는 연기를 잘 몰랐다. 열정과 패기 하나로 달려들었다. 불안함에 제 자신을 다독이지 못해 압박감과 중압감을 컸다. 30대가 되면서 여유가 생겼고, 기술적인 것보다 한 장면 한 장면 깊게 표현하는 진심을 담은 연기에 욕심이 생겼다. ‘못하면 어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기하기가 편해졌다.”

‘흑기사’를 통해서도 연기자로서 뿌듯함까지 느꼈다. 서지혜는 2009년 불멸의 샤론을 사는 독특한 설정의 샤론을 연기하며

사극과 시대극, 현대극을 넘나들고 액션 연기까지 소화했다. 남장도 했고, 최후회에서는 노인 분장까지 시도하는 등 “마치 4편을 찍은 것처럼” 체력과 감정을 쏟았다. 보여줄 장면이 많아 힘들었을 테지만 그는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한 다양한 모습을 한 드라마에서 보여줘 다행”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남자의 세계를 연기하는 게 재밌더라. 잘 어울리기도 하고, 다음 생에는 남자로 태어나도 좋을 것 같다”며 흥미로워한다.

“‘흑기사’로 블랙코미디를 해보면서 망가지는 코믹 연기도 해보고 싶어졌다. 액션도 좋다. 짝사랑 캐릭터만 아니면 된다. 짝사랑은, 연기이지만 섭섭할 때도 있다. 슬프고 짝한 내용보다 알콩달콩 행복하게 지내는 사랑 연기를 원한다. 행복하고 싶다. 하하!”

15년 동안 활동하면서 큰 스캔들이 없었던 서지혜는 아직 “진짜 짝”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결혼한 여동생이 “연애세포 죽을까봐 걱정”할 정도다. 서지혜는 마지막 연애가 오래돼 “이상형이 없어졌다”고 했다. 예전에는 연하나 동갑은 남자도 보이지 않었다는 그는 “지금도 가릴 상황이 아니”라며 “이제는 연애를 해보려고 한다”고 선언했다.

“연애설이 ‘진짜’인 적은 없었다. 물론 연애는 했지만 알려지지 않은 건 상대가 동종 업계 사람이 아니고 유명인이 아니어서가 아닐까. 하하! 서른두 살 때에는 부모님이 ‘결혼 안하냐?’라고 물었는데 이제 얘기 안하신다. 서른 살 때는 3년 뒤 결혼할 줄 알았는데,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는 게 결혼이라는 걸 알았다. 자꾸 계획이 무산되니 마음은 편한

데, 결혼 생각은 항상 하고 있다.” 서지혜는 이런저런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지금이 즐겁다. 파르파릇했던 20대 때도 재밌었지만 “성숙한 30대”를 맞아 자신과 주변이 달라지는 변화를 눈으로 지켜볼 수 있는 여유 있는 삶에 활기를 느꼈다.

“예전에는 멈춰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았다. 지금은 가만히 TV보거나 강아지랑 노는 게 좋다. 혼자서 고독을 즐기는 것도 즐겁다. 가족과 나의 사랑을 챙기는 데 더욱 집중하게 되면서 소소한 행복을 찾기 시작했다.”

서지혜의 한파를 즐기는 소소한 재미는 동네 찜질방 다니기다.

“‘흑기사’ 촬영이 끝나고도 한기가 몸에 서 빠지지 않아 찜질방에서 지냈더니 나아졌다. 하하! 체력관리의 필요성도 제대로 느꼈다. 예전에는 밤새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힘들더라. 고구마랑 닭 가슴살 먹고 단기간에 살 빼는 것도 잘 못해, 체력단련은 물론 식단관리까지 열심히 해야 할 나이가 됐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배우 김희애가 스릴러 장르의 영화 '사라진 밤'에서 긴장감 넘치는 캐릭터를 맡아 이미지 변신에 나선다.
 사진제공 | 씨네그루(주)키다리이엔티



숫자뉴스

0.067%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배우 예학영의 혈중알코올농도. 예학영은 16일 오전 7시 55분께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입구 도로에 외제차를 세워두고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예학영은 2009년 마약류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해시태그 킷



뉴욕의 패션 끝판왕은 나!

연기자 채정안이 미국 뉴욕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패션의 도시답게 그도 화려한 의상으로 맴시를 뽐낸다. 호피무늬의 코트를 걸친 채정안은 독특한 디자인의 가방과 신발의 색깔조합으로 센스를 보여준다. 뒤를 살짝 돌아보며 한쪽 발끝을 세운 포즈도 남다르다. 하지만 현실은 '뉴욕 커'보다 '푸백'이다. 그는 “오늘은 얼마나 걸을 수 있을까. 만보 걷기는 기본”이라고 말한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스포츠동아 #채정안 #뉴욕 #뉴욕커 #두벅이

수지, 다시 연기 모드

MBC 드라마 '이리와 안아줘' 출연 이달 말 새 앨범 활동 마무리 계획



수지

가수와 연기자, 두 영역에서 정상 위치에 오른 수지가 다시 연기자로 돌아와 성공 가도를 이어간다.

지난달 29일 두 번째 미니앨범 '페 이시스 오브 러브'를 통해 솔로 여가수로서 입지를 확고히 다진 수지는 5월부터 방송하는 MBC 수목드라마

'이리와 안아줘'로 안방 공략에 나선다. 전작 '당신이 잠든 사이에'를 통해 연기력까지 인정 받은 만큼 수지에 쏠린 방송가의 관심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특히 공백 없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면서 수지만큼 '홍행 파워'를 자랑하는 이는 흔치 않다. 덕분에 수지는 드라마, 영화 등 장르 불문하고 여전히 섭외 0순위다.

그런 가운데 수지가 선택한 차기작 '이리와 안아줘'는 살인사건으로 인해 갇힌 삶을 살게 된 남편의 기구한 운명을 그린 드라마다. '국민 여동생'으로 오랜 시간 군림한 그가 로맨틱코미디 드라마에 전착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감정의 폭이 큰 캐릭터를 주로 선택하는 것도 수지만의 철학이다.

수지는 “연기할 때만큼은 내 자신에게 더 엄격해지게 된다”며 연기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곤 했다.

수지는 이달 말까지 가수 활동을 마무리하고 3월말이나 4월 초 드라마 촬영을 시작한다. 한 달가량 남은 기간 동안 캐릭터 분석 등 드라마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영연 기자 annjy@donga.com

명품배우의 반전...스릴러 도전하는 장동건·김희애

각각 '7년의 밤' '사라진 밤' 주연 스릴러 영화 재도약 이끌지 기대



배우 김희애가 스릴러 장르의 영화 '사라진 밤'에서 긴장감 넘치는 캐릭터를 맡아 이미지 변신에 나선다.
 사진제공 | 씨네그루(주)키다리이엔티

말끔하고 환한 외형적 이미지에 ‘결맞은’ 반전의 캐릭터. 우아하면서도 세련돼 더욱 미스터리함을 안겨주는 인물. 영화 '7년의 밤'과 '사라진 밤'의 각기 주역 장동건과 김희애가 이전의 이미지를 단박에 뒤집는 역할로 관객을 만난다. 특히 두 영화는 한동안 스크린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한 스릴러 장르라는 점으로 이들의 활약상에 기대를 걸게 한다.

장동건은 3월 말 개봉하는 '7년의 밤'(감독 추창민·제작 풀룩스픽처스)에서 관객이 쉽게 예상치 못하는 캐릭터를 연기한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살인사건에 얽힌 세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속에서 장동건은 딸을 잃고 복수를 꿈꾼다. 하지만 내면에 감춘 폭력성은 좁혀 그 끝을 알 수 없는 극악함을 드러낸다. '조각남'

이라는 별칭이 캐릭터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역할의 힘을 발휘한다.

이에 앞서 3월 7일 선보이는 '사라진 밤'(감독 이창희·제작 싸이더스)의 김희애 역시 우아한 이미지에 기댄 캐릭터의 묘한 매력을 발산한다. 국과수 사체보관실에서 사라진 시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형사와 한 부부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속 김희애는 사건에 얽힌 원가를 감

춰둔 것 같은 미묘한, 나아가 섹시한 카리스마를 뽐낸다.

이 같은 두 배우의 극중 캐릭터가 표출하는 이미지는 스릴러 장르를 표방하는 영화에 걸맞게 관객의 긴장감을 자아낼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추격자' '숨바꼭질' '더 테러 라이브' 등 2010년대 중반까지 관객의 시선을 모았던 스릴러 영화의 흥행세에 다시 불을 댕길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당시 '장르 쏠림' 현상이라는 비관 속에서도 스릴러 장르가 살아났지만 관람 피로도도 쌓인 채 팍팍한 일상에 놓인 관객에게 그 무거운 이야기는 더 이상 시선을 끌지 못했다. 2016년 '곡성'이 흥행하며 스릴러 영화의 맥을 이었지만 이후로도 이 장르는 관객에게 쉽게 다가서는 데 실패했다.

이런 상황에서 장동건, 김희애가 각기 류승룡, 김상경 등과 어우러지며 한국 스릴러 영화에 대한 관객의 새로운 관심을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

설 극장가 장악한 '블랙팬서'...5일 만에 300만 관객 돌파

역대 마블사 영화 중 가장 빠른 속도 북미서도 돌풍...첫날 수입 817억원

극장가는 '블랙' 열풍이다. 새로운 흑인 영웅이 설 연휴 극장을 찾은 관객을 사로잡았다.

마블스튜디오의 새 시리즈 '블랙팬서'가 설 연휴 극장가를 장악했다. 14일 개봉해 연휴 첫날인 15일에 역대 마블 영화로는 가장 빠른 속도로 100만 관객을 넘어섰고, 연휴 마지막인 18일에는 누적 300만 명을 돌파했다.

같은 시기 '조선명탐정:흙별과미의 비밀' 등 여러 편의 한국영화가 상영했지만 사실상 '블랙팬서'의 독주나 다름없었다. 개봉 이후 1400~1500개 스크린을 유지하면서 18일까지

박스오피스 1위를 굳건히 지켰다.

'블랙팬서'는 기존 히어로무비와 다른 개성으로 관객을 찾아갔다. '아이언맨' '어벤져스' '캡틴 아메리카' 등 마블의 기존 시리즈가 인류를 구하는 영웅의 서사이지만, '블랙팬서'는 마블에 처음 등장한 흑인영웅이라는 특수성을 마유크트 살린다.

영화는 아프리카 미지의 왕국 와칸다를 배경으로 왕위를 계승한 주인공 티찰라가 자신을 위협하는 세력을 이겨내고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흑인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고민을 풀어내는 데 상영시간 2시간 15분의 대부분을 할애한다. 마블의 전매특허로 통하는 통쾌한 전투장면이나 유머는 찾아보기 어려운데도, 이런 낯선 도전이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블랙팬서'는 특히 설과 추석 등 명절에는 전통적으로 한국영화가 강세를 보인 '홍행 공식'마저 무너뜨렸다. 마블의 히어로무비 가운데 처음으로 설 명절에 개봉해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고 있다.

열풍은 국내 뿐만이 아니다. 북미 개봉에서도 '블랙' 돌풍이다.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현지에서 17일(한국시간) 개봉한 영화는 첫 날 7580만 달러(817억원)의 흥행수익을 거두며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예약했다. 할리우드리포트는 18일 "'블랙팬서'가 기존 마블 히트작인 '어벤져스'의 개봉 첫 주 흥행수익을 뒤엎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연예뉴스 HOT3

김기덕 '판결, 책임감 느낀다'

신작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으로 제 68회 베를린국제영화제를 찾은 영화감독 김기덕이 여배우 폭행사건으로 벌금형을 받는데 대해 "(사건 당시)장면을 리허설하고 있었고,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당시 스태프 누구도 부정적이라고 이야기해주지 않았다. 그 여배우만이 다르게 받아들였다"면서 "판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판결이 영화 산업을 바꿔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덕은 파노라마 부문에 초청돼 1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 나섰다. 취재진의 질문공세를 받았다.

'더유닛' 남녀 우승팀 봉사활동

KBS 2TV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유닛'에서 우승한 남녀팀 멤버 18명이 17일 경북 포항 흥해 실내체육관을 찾아 지진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급식소 봉사활동을 벌였다. '더유닛' 우승팀 멤버들은 정식 데뷔를 앞두고 첫 공식 활동으로 뜻 깊은 봉사활동을 선택했다. 앞서 설날인 16일 '더유닛' 측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연예인응원단 화이트타이거즈와 '더유닛' 제작사, 우승멤버 18명 등이 포함 이재민들에게 1억 원 상당의 패딩 500벌을 기부했다.

래퍼 정상수, 만취 중 행패 논란

래퍼 정상수가 18일 서울 서교동 일대에서 술에 취한 채 길을 가던 여성들에게 시비를 거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이날 온라인 상에 퍼지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영상 속 정상수는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고 길가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발로 차고 있다. "신고 좀 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의 목소리도 들린다. 앞서 정상수는 작년 4월과 7월 각각 술집에서 난동을 피우고, 손님을 폭행해 입건되는 등 술로 인해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다.